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태국

Kingdom of Thailand

2024년 4월 18일 | 책임조사역(G3) 김건웅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동향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일반개황

면적 513천 km ² 	인구 7,018만 명 (2023 ^e) 	정치체제 내각책임제 (입헌군주제) 	대외정책 친서방 중립 
GDP 5,149억 달러 (2023 ^e) 	1인당GDP 7,337달러 (2023 ^e) 	통화단위 Baht(Bt) 	환율(U\$기준) 34.80 

- 인도차이나 반도에 위치한 태국은 한반도 면적의 2.3배에 달하는 국토와 7,018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북서쪽으로 미얀마, 북동쪽으로 라오스, 남동쪽으로 캄보디아, 남쪽으로 말레이시아와 각각 국경을 접하고 있음.
- ASEAN 국가 중 인구 4위, GDP 규모 2위인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신흥경제국으로 전자제품과 자동차 제조업이 발달함. 열대성 기후의 연중 휴양지로 청정해안과 풍부한 문화유산을 보유하여 세계적인 관광대국으로 자리매김하였으나,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음. 2022년 위드코로나 시대 도래로 이후 관광업이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2023년 5월 총선 결과 야권의 전진당이 151석, 프아타이당이 141석을 차지하며 주요 야당이 압승을 거둠. 제1당인 전진당이 7월 총리 선출에 실패한 후 제2당인 프아타이당이 친군부 및 보수정당과 연정을 구성해 세타 타위신(Srettha Thavisin)을 단독 후보로 내세워 8월 상·하원 합동투표에서 찬성 482표로 집권함.
- 대외적으로는 ASEAN 및 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의 중심 국가이며, 양자 및 다자간 FTA 협정을 체결하는 등 무역 확대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58. 10. 1 수교 (북한과는 1975. 5. 8)

주요협정 무역협정('61), 항공협정('68), 이중과세방지협정('77), 과학기술협력협정('85), 투자보장협정('89), 범죄인인도조약('01), 해상운송협정('02), 문화교육협정('04), 수형자이송조약('12), 사법공조조약('15)

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구분	2021	2022	2023	주요품목
수출	8,524,224	8,584,166	7,548,179	철강판, 반도체, 합성수지
수입	7,014,746	7,876,692	7,366,589	반도체, 기호식품, 석유제품

해외직접투자현황(2023년 말 누계, 총투자 기준) 1,341건, 3,355백만 달러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e
경제성장률	2.1	-6.1	1.5	2.5	1.9
소비자물가상승률	0.7	-0.8	1.2	6.1	1.2
재정수지/GDP	0.4	-4.5	-6.7	-4.5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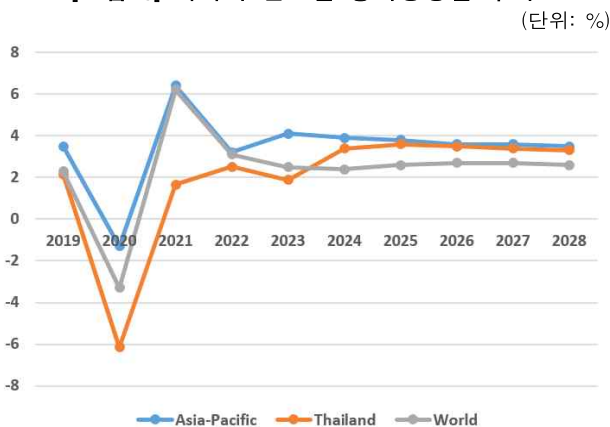
자료: IMF, EIU

2023년 관광 부문 회복 등으로 1.9% 경제성장 추정, 2024년에도 회복세 지속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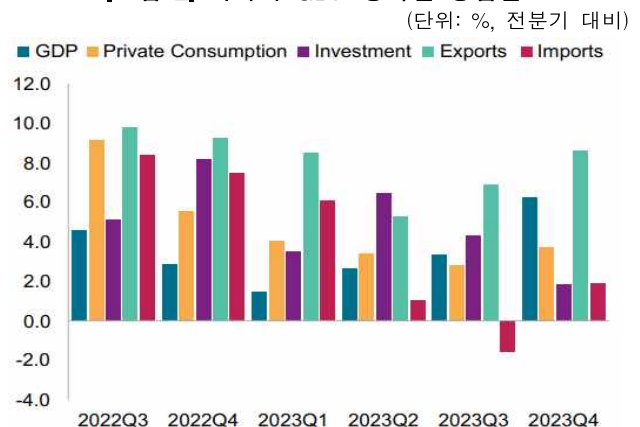
- 태국 경제는 정부 주도의 인프라 사업, 대외거래 호조 등으로 2017~18년 4%대의 양호한 성장을 보였으나,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6.1%의 역성장을 하였음. 2022년 하반기부터 관광 부문 회복, 민간소비 증가, 공공 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2022년 2.5% 플러스 성장을 회복하였음. 2023년에는 1.9% 성장을 한 것으로 추정되며, 관광 부문의 회복이 기대보다는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중국의 코로나19 방역 정책 완화로 인한 태국 내 중국 관광객 입국 증가 예상 및 2023년 1월부터 시행된 신규투자 촉진전략으로 전기차, 전기차 부품 등 핵심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태국 경제는 2024년 약 2.7% 성장을 기록하며 점차 성장이 가속화될 전망이다(IMF).
- 태국 관광체육부에 따르면 2023년 외국인 관광객 수는 전년 대비 154% 증가한 약 2,815만 명을 기록했음. 태국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침체에서 태국 관광 산업이 거의 회복됐으며 2024년 외국인 관광객 유치 목표를 팬데믹 이전 수준인 약 4,000만 명으로 수립하였음. 한편, 태국 정부는 제3차 국가관광개발계획(2023~27년)안 승인('23.1.4.), 관광 보조금 지급 검토 등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계획하고 있음.
- 한편, 태국 정부의 2024년 경제성장률 목표는 2.8%이며 IMF, ADB, 세계은행 등도 2.7~3%대의 성장을 예측하고 있으나, 글로벌 경기 침체, 바트화 가치 하락 등 경제 하방요인도 상존함.

* 2024년 태국 경제성장률 전망: IMF 2.7%, ADB 3.7%, 세계은행 3.2%, EIU 3.4%, Fitch 3.0%

[그림 1] 태국의 연도별 경제성장률 추이



[그림 2] 태국의 GDP 항목별 증감률



국내경제

2022년 소비자물가상승률 14년 만에 최고치 기록 이후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8차례 연속 인상

- 태국의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8~21년 중 1.5% 미만으로 억제되어 왔으나, 2022년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인해 14년 만에 최고치인 6.1%를 기록하였음.
- 2022년 8월 정점(7.86%) 이후 안정화되었고, 2023년 5월 이후에는 1% 미만으로 둔화되어 2023년 평균 1.2%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2024년 1월에는 -1.11%로 2년 11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함.
- 태국 정부는 2022년의 소비자물가 급등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며, 2023년에는 통화 정책 등을 통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1~3% 범위 내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 2024년 물가상승률은 중앙은행의 관리범위(1~3%) 이내로 안정적으로 유지될 전망이나, 최저임금* 및 전기요금 인상 등 우려 요인도 존재함.

* 태국은 일일 최저임금을 2023년 328~354바트에서 2024년 1월 이후 330~370바트로 2.37% 인상하고, 현 인상률이 낮다고 평가하면서 2024년 4월 재검토 시사

- 태국 중앙은행은 2020년 5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 수준인 0.5%로 유지해왔으나, 2022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바트화 평가절하 및 물가 상승이 심화되자 인플레이션 억제와 경제회복 지원을 위해 기준금리(key policy rate)를 2022년 8월부터 여덟 차례에 걸쳐 총 200bp 인상하여 2.50%로 유지 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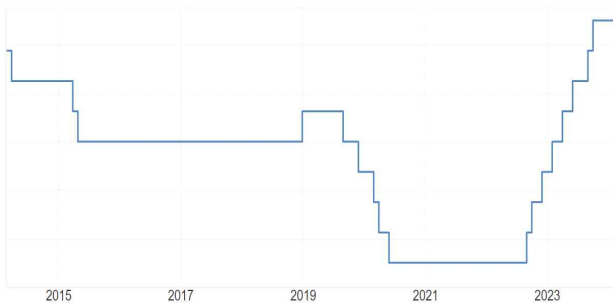
* 2022.8월 0.75%(▲25bp) → 2022.9월 1.00%(▲25bp) → 2022.11월 1.25%(▲25bp) → 2023.1월 1.50%(▲25bp) → 2023.3월 1.75%(▲25bp) → 2023.5월 2.00%(▲25bp) → 2023.8월 2.25%(▲25bp) → 2023.9월 2.50%(▲25bp)

- 2022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바트화의 평가절하가 지속되었으며, 2022년 10월에는 미 달러 대비 바트화 환율이 16년 만에 최저치인 38.32를 기록함. 한편, 2022년 7월 관광 재개, 10월 워드코로나 정책 시행 등으로 관광객 유입이 증가하면서 태국 경제가 활성화되었으며, 태국 내 외국인들의 투자활동도 회복되고 있어 2023년에는 환율이 하락하였으나 2024년부터 다시 상승 추세에 있음.

* 미 달러 대비 바트화 환율 : 32.16('22.2.19) → 38.32('22.10.16) → 32.66('23.1.21) → 37.04('23.10.3) → 34.27('24.1.3) → 36.36('24.3.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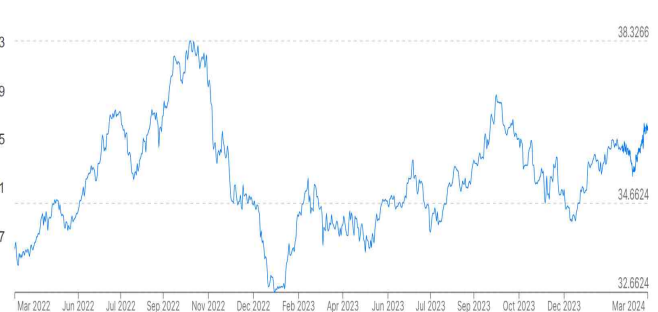
[그림 3] 태국 기준금리 변동 추이

(단위: %)



자료: 태국 중앙은행/Trading Economics

[그림 4] 바트화 환율 변동 추이(미 달러 대비)



자료: 태국 중앙은행, xe.com inc.

국내경제

경제활동 회복에 따른 세입 증가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단기적으로 개선 전망

- 재정수지는 2010년 이후 매년 GDP의 -1~1% 수준을 유지해 왔으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세수 감소에 더해 원천징수 감면, 부가가치세 환급, 각종 세금 납부기한 연기 등 감세 정책을 펼치는 한편 경기 부양 및 방역을 위한 재정지출을 확대한 결과 2020년 GDP 대비 -4.5%, 2021년에는 GDP 대비 -6.7%의 적자를 기록함.
- 태국 정부의 위드코로나 선언(2021년 11월)에 따른 코로나19 대응 지출 감소, 관광 부문 회복 등에 따른 세입 증가 등에 힘입어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2022년에는 -4.5%, 2023년에는 -3.2%로 점진적 개선 추세를 보였음.
- 한편, EIU는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의 태국 회계년도 동안 소비 촉진과 복지 확대를 위한 정부예산 지출이 증가하므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2023년 -3.0%에서 2024년 -3.5%로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였음. 반면, 2024년 경제성장이 점차 가속화됨에 따라 재정수입이 증가하여 재정적자가 크게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긍정적인 면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예상함.

* 재정수지/GDP(%) : -4.5%(2022년) → -3.0%(2023년^e, EIU) → -3.5%(2024년^f, EIU)

- 또한, EIU는 태국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재정 건전화 계획이 지연될 것이며, 재정수지 적자는 2025~28년에 걸쳐 GDP 대비 평균 -3.4%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았음. 동 기간 중 인프라 투자의 증가가 정부지출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며, 동 기간 후반에 부가가치세율이 현재의 7%에서 인상될 경우 재정수입 증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측하였음.

전자지갑 지급, 에너지 가격 인하 등 새 정부의 내수 활성화 정책 시행

- 세타 신임 총리는 2023년 9월 11일 의회 시정 연설에서 새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국정과제를 발표했는데, 특히 16세 이상 전 국민 1인당 1만 바트(약 38만원), 총액 5,600억 바트(약 21조 원) 규모의 전자지갑 지급, 에너지(전기, 가스, 석유) 가격 인하, 특정 국가에 대한 비자 면제 등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 등 단기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시함.
- 단기 경기부양책 외에도 소득 증진, 기회 확대, 삶의 질 개선 등 주제별로 다수의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태국 정책당국은 1만 바트 전자지갑 정책이 2024년 경제성장률에 약 3%의 인상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채권 발행보다는 정부지출 조정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것으로 알려짐.*

* 자료: "태국 신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과 시사점" p.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3.9.26자

대외거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e
경상수지	38,256	20,933	-10,268	-15,742	6,983
경상수지/GDP	7.0	4.2	-2.0	-3.2	1.4
상품수지	26,725	40,402	32,354	13,543	17,088
상품수출	242,701	226,984	270,564	285,162	280,244
상품수입	215,976	186,582	238,210	271,619	263,156
외환보유액	214,573	246,034	224,804	195,582	201,557
총외채	179,773	200,015	210,982	214,551	226,593
총외채잔액/GDP	33.0	40.0	41.7	43.3	44.0
D.S.R.	6.7	8.0	6.3	6.9	8.4

자료: IMF, EIU, OECD

관광업의 경기 회복 등으로 2023년 경상수지 흑자 전환 추정

- 태국 총수출의 약 19%(2019년 기준)를 차지하는 관광업은 2014~20년 태국의 서비스수지 및 경상수지 흑자 유지*에 일조해 왔으나, 2020년 초 시작된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국가 간 이동 제한으로 관광업이 큰 타격을 받으면서 서비스수지가 2020~22년의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함에 따라 경상수지도 2021년 GDP 대비 -2.0%, 2022년 GDP 대비 -3.2%의 적자를 기록하였음.

* 2014~19년 경상수지 흑자 내 서비스수지 흑자 비중(%) : 57.5('14) → 56.1('15) → 46.7('16) → 55.3('17) → 79.1('18) → 63.6('19)

- 2022년 하반기부터 관광 개방, 워드코로나 정책 시행 등으로 관광객 유입이 증가하며 2023년 경상수지는 GDP의 1.4% 수준의 흑자로 전환된 것으로 추정되나, 중국 관광객 유입이 기대에 못 미치는 등 흑자 폭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됨.
- 태국의 상품수출은 자동차, 전기.전자제품 등의 부품을 수입하여 완제품을 조립.생산하는 가공무역이 중심을 이루고 있음. 최근 전기차 산업 투자 유치 대책 수립, 보조금 지급 등 동남아시아의 전기차 생산 허브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태국의 노동력 공급이 부족하고 동남아 국가 내 전기차 투자 유치 경쟁이 치열함.
- 태국 투자청에 따르면 태국의 전기차 산업 투자 유치 대책 발표 후 중국, 일본, 유럽 등 자동차 제조사들이 관심을 표명하고 있음. 세계적인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는 태국 시장 진출을 완료하였음.
- 2024년 3월 4일 태국 총리실 관계자는 태국 정부와 테슬라가 최근 수년 간 테슬라의 태국 진출 관련 협의를 해왔으며, 테슬라 기가 팩토리의 태국 유치를 위한 협이가 진행 중이라고 밝힘. 2023년 12월 테슬라 경영진이 태국을 방문해 산업단지를 둘러보는 등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음.

외채상환능력

외환보유액은 비교적 양호하나, 증가하는 외채잔액 모니터링 필요

- 2022년 말 1,956억 달러를 기록했던 태국의 외환보유액은 2023년에는 전년 대비 경상수지 개선 등의 영향으로 동년 말 2,016억 달러로 증가함. 이는 월평균수입액의 6.6개월분에 해당되어 IMF 권고 적정 외환보유액 기준*으로도 양호한 편이며,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8.4%로 추정되어 외채상환능력은 대체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월평균수입액의 3개월 분 이상

- 다만, 총외채잔액/GDP, 단기외채잔액/외환보유액 비율은 증가 추세에 있어 모니터링이 필요함

※ 총외채잔액/GDP 추이(%): 33.0('19) → 40.0('20) → 41.7('21) → 43.3('22) → 44.0('23^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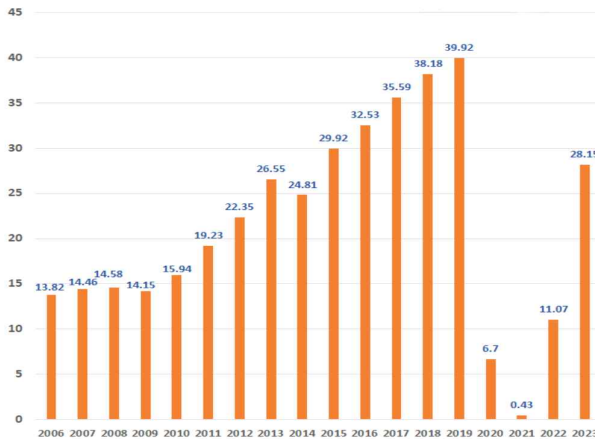
※ 단기외채잔액/외환보유액 추이(%): 27.9('19) → 30.4('20) → 33.3('21) → 40.9('22) → 38.6('23^o)

구조적취약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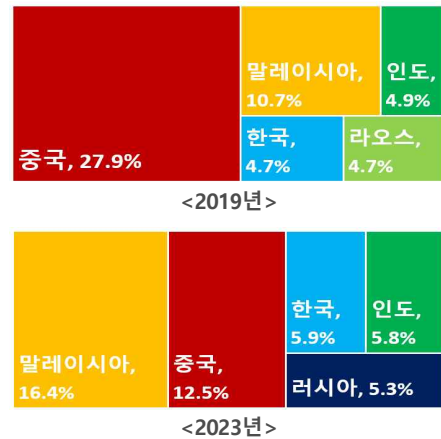
주요 산업인 관광업은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변동성이 높은 구조

- 관광업은 2019년 기준 태국 총수출의 약 19% 및 GDP의 약 11%를 차지하는 주요 산업으로 외화 획득과 고용 창출에 기여해 왔으나, 2020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해외 관광객들의 입국 금지 조치로 인해 관광업이 사실상 전면 중단되면서 태국 경제는 큰 타격을 받았음.
- 2019년 약 3,992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태국에서 약 811.7억 달러 규모를 지출한 반면 2020~21년에는 총 713만 명('20년 670만 명, '21년 43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연평균 약 320억 달러를 지출하는데 그쳤으며, 그 차이는 2021년 GDP의 약 9%에 달함.
- 2022년에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위드코로나'를 선언하며 국가 간 이동이 회복됐으나, 태국 관광객의 27%를 차지(2019년 기준)하는 중국의 강력한 '제로코로나' 방역 정책으로 중국인 이동이 제한됨에 따라 태국 관광업의 회복세가 지연되었음.
- 2023년에는 약 2,815만 명의 관광객이 내방하였고, 2019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중국을 제치고 인접국인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많이 내방하며 가파른 회복세에 있음.
- 2024년 3월 1일부터 중국과 상호 비자 면제 조치를 시행하여 중국 관광객 수가 2023년의 351만 명보다 2배 이상 많은 800만 명이 내방할 것으로 예상하는 등 관광 부문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그림 5] 태국 입국자 수 추이(백만 명)



[그림 6] 입국자 국적별 비중 변화(상위 5개국)



자료: 태국 관광체육부(Ministry of Tourism and Sports), ThaiWebsites.com/tourism.asp

높은 가계부채 부담이 안정적인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지적

- 코로나19 장기화와 경제성장 둔화로 인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2017년부터 5년 연속 증가하였다가 2022년을 기점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2023년 9월 말 기준 태국의 가계부채는 말레이시아(68.5%), 중국(62.4%), 인도네시아(16.3%) 등 아시아 신흥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됨.

※ 가계부채(억 달러) : 3,948('17) → 4,215('18) → 4,807('19) → 4,982('20) → 4,657('21) → 4,649('22) → 4,483('23.3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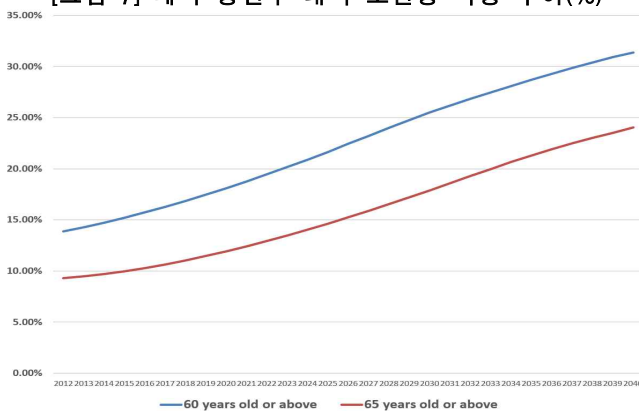
※ 가계부채/GDP(%) : 83.2('17) → 83.3('18) → 84.7('19) → 95.3('20) → 95.6('21) → 92.4('22) → 91.8('23.3Q)

구조적취약성

인구 고령화, 저출산, 주변국 대비 높은 임금수준으로 제조기지로서의 경쟁력 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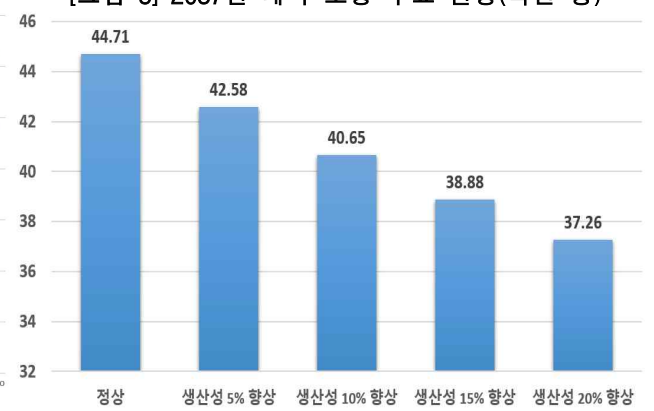
- 태국은 고령화로 인한 노동인구(생산가능인구, 15~59세) 부족이 경제성장의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태국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NESDC)에 따르면 2023년 말 약 4,256만 명으로 추정되는 태국의 노동인구 규모는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2040년 약 3,650만 명을 기록할 것이며, 태국의 60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23년 20.2%에서 2040년에는 31.4%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함.
- 태국 내각이 2022년 5월 17일에 승인한 2022~37년 인구개발계획안에 따르면 2037년 태국 노동력 수요는 2017년 3,755만 명보다 19.1% 증가한 4,471만 명이나, 노동인구는 10년마다 300만 명 이상 감소하여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봄. 태국은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며, 노동생산성이 5% 증가할 때 노동수요는 약 200만 명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함.

[그림 7] 태국 총인구 대비 노년층 비중 추이(%)



자료: Population Estimates of Thailand 2010-2040(Revised Edition), Office of the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Council/그림 자체 작성

[그림 8] 2037년 태국 노동 수요 전망(백만 명)



자료: 인구개발계획안(2022-2037) P.40, Office of the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Council/그림 자체 작성

- 2023년 기준 태국의 출산율은 1.46명으로 베트남(2.02명), 캄보디아(2.39명) 등 주변국들보다 낮은 편임. 또한 태국의 중위연령은 40.2세로 베트남(32.8세), 라오스(24.4세)보다 높은 수준이며, 이는 외국인투자 유치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분석됨.
- 2023년 2월 현재 태국의 일일 최저임금은 354바트(약 10달러)이고, 월 최저임금은 약 200달러로 미얀마(67달러), 라오스(110달러), 캄보디아(128달러), 베트남(96달러) 등 주변국 대비 높은 편임.
- 노동력 부족 및 지속적인 임금 상승은 민간투자 위축과 경제성장 둔화로 이어져 노동집약적 산업이 인근 동남아 국가로 이전하는 요인이 됨.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다변화하면서 중국을 대체하는 제조기지로 일부 아시아 국가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나, 태국은 상대적인 고임금으로 베트남 등 주변국에 비해 불리한 입장임.

성장잠재력

BCG(Bio-Circular-Green) : 지속가능하고 균형잡힌 경제발전 모델 도입

- 태국은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경제발전을 도모해 왔으며, 2022년 11월에는 지속가능하고 균형잡힌 경제발전을 위해 BCG(Bio-Circular-Green) 도입을 발표함. 기업 친화적인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군부의 집권이 계속되면서 비교적 효율적인 사법제도와 조세 시스템 등 주변국 대비 우호적인 외국인투자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태국 정부는 2026년까지 2021년 GDP의 24% 수준인 4.4조 바트(약 166조 원)을 4대 핵심산업*에 투입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임을 밝힘
- * 식품 및 농업, 의료 및 웰니스, 신재생 에너지(에너지·소재·바이오화학), 관광 및 창조경제
- 또한, 태국은 지속가능한 관광 상품을 꾸준히 개발하여 관광업에 접목시키고 있음. 트랏(Trat) 주의 꼬막(Koh Mak) 섬을 태국 최초의 저탄소 관광지로 추진하고 있으며, 폐기물을 줄이거나 친환경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업체 앞 세제 혜택 및 보조금 등의 인센티브 부여도 고려 중임.

[표 1] 태국 BCG 경제 발전 모델 핵심사업별 추진 과제

핵심산업	세부 추진 과제
식품 및 농업	스마트 팜, 신종작물 작물 경작 및 축산 (목표) 제품 차별화 및 프리미엄 농산물 개발을 통한 프리미엄화
의료 및 웰니스	유전자 치료, 백신, 원격의료, 임상실험 (목표) 태국의 아세안 의료 허브화, 유전자 데이터 활용을 통한 정밀의학 발전
신재생 에너지	(목표) 2037년까지 에너지 소비량의 30% 재생가능 에너지 전환 목표
관광 및 창조경제	신규 관광도시 개발 (목표) 지속가능한 관광 표준 시스템 확립

전자상거래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 전망

- 2024년 1월 기준 태국의 인터넷 사용률은 총인구의 88.0%(세계 평균 66.2%)로 높고, 스마트폰이나 피쳐폰을 사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하는 16~64세 인터넷 사용자 비율은 98.3%(세계 평균 96.5%)로 온라인 친화적인 시장환경을 가짐. '현금 없는 사회'(Cashless Society) 정책의 추진으로 전자상거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국내 온라인 결제뿐만 아니라 해외 온라인 결제도 증가하는 추세임.
- 또한, 매주 온라인 쇼핑을 하는 16~64세 인터넷 사용자 비율이 66.9%(세계 평균 56.1%)로 세계 1위, 매주 온라인으로 식료품을 구매하는 16~64세 인터넷 사용자 비율이 44.0%(세계 평균 28.2%)로 세계 2위를 기록함.

* 자료 : DIGITAL 2024 – Global Overview Report, we are social & Meltwater

- 태국 전자상거래 시장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연평균성장률(CAGR) 14%로, 2027년에는 총취급액(Gross Merchandise Value)이 46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자료 : "Uneven recovery hinders sector's growth", Bangkok Post, '22.10.19자

성장잠재력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바트화 결제 가능 국가 확대 노력

- 태국 정부는 2022년 6월 인프라 및 공공사업에 관한 행동계획을 승인하고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세금 감면, 기계 및 원자재 수입관세 면제, 외국인의 토지 취득 허가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는 태국과 무역 거래 시 바트화 결제가 가능토록 승인하였으며, 최근 베트남도 바트화 결제를 승인하였으나 사용 빈도는 낮은 것으로 파악됨.

2023년 세계 2위의 쌀 수출국 등극

- 태국 쌀수출협회(TREA)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태국 쌀 수출량은 876만 톤으로 2022년 769만 톤 대비 13.9% 증가하여 세계 2위의 쌀 수출국으로 자리잡음.
- TREA 명예 회장 Chukiat Opaswong에 따르면 2023년 쌀 수출 증가는 인도의 쌀 해외 수출 금지 조치에 따른 것으로, 2024년에는 인도가 쌀 수출을 재개하면서 세계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며 태국과 베트남이 각각 750만 톤으로 2위를 놓고 경쟁할 것이라고 예상함(2024.2.8.자 The Nation 보도).

정책성과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동부경제회랑(EEC) 개발 순항 중

- 태국 정부는 2017년 동부경제회랑(East Economic Corridor: EEC)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2018년 5월 정식 발족하였음. 동 계획은 태국 정부가 중장기 국가개발 의제인 '태국 4.0'(Thailand 4.0)을 실현하기 위해 경기도의 약 1.3배에 해당하는 13,285km²의 동부 해안 지역(차츄사오 주, 촌부리 주, 라용 주)을 태국 무역과 물류의 핵심이 되는 최첨단 산업 단지로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태국 정부는 동 지역이 동아시아, ASEAN, 인도 등 아시아 각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하고 기존에 공항, 항만, 철도, 고속도로, 산업단지 등을 이미 갖추고 있어 차세대 아시아 관문이 될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데 적합하다고 발표하였음.
- EEC 개발 계획은 단계별로 추진 중이며, 태국 정부는 1차로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1.5조 바트(약 430억 달러), 2차로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2.2조 바트(약 667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실시한다는 계획을 발표함.
- 2022년 10월 태국 정부는 EEC 내 기업 유치에 대해 세금 감면 등 투자 혜택을 강화하는 한편, 전기차·스마트시티 등 신성장 동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표 2] 동부경제회랑(EEC) 개발 계획 개요

구 분	내 용
기 간	1차: 2017~21년, 2차: 2022~26년
총 예산규모	1차: 1.5조 바트(약 430억 달러), 2차: 2.2조 바트(약 667억 달러)
목 적	태국 동부 해안 지역을 최첨단 산업단지로 변모
주요 내용	차츄사오 주, 촌부리 주, 라용 주 3개 지역에 최신 인프라를 정비하고, 여기에 차세대 자동차, 스마트 전자, 관광, 바이오테크, 음식, 로봇, 항공, 바이오연료, 디지털, 의료 등 10대 첨단산업을 육성
승인 프로젝트	우타파오 국제공항 리모델링, 국제공항철도 개발, 램차방 항구 정비 등
규제 완화	- PPP(민관 합작 투자사업) 인·허가 절차 기간: 8~10개월로 단축(기존 24개월) - 법인세 면제 기간: 15년으로 연장(통상 8년) - 토지 임대 기간: 최장 99년까지 인정 - 원자재와 기계 등 수입품에 무관세 - 국가경쟁력기금을 설치하여 태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기 타	동 개발계획을 헌법이 규정한 '20년 국가전략'에 포함시키고,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EEC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을 총리가 직접 맡음

경기 회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 시도

- 2022년 10월 태국 정부는 '위드 코로나' 선언 후 관광산업 및 경기 회복을 위한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시행함. 또한, 향후 5년 간 태국 13차 국가경제사회개발계획의 초점을 '산업혁신, 인적자원 개발, 사회적 불평등 해소, 환경보존, 위기 및 변화 대응(인프라 개발)' 5대 이슈에 맞추어 경제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2022년 9월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 우수 기술전문인력, 100만 달러 이상 자산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10년 장기거주비자 제도를 시행하였음.

정치안정

2023년 5월 총선 결과 세타 타위신 총리 선출, 총선 1위를 차지한 전진당의 연립정부 제외로 정치적 긴장 지속

- 2014년 5월 22일 태국 군부는 쿠데타를 일으켜 경찰과 군부로 구성된 국가평화질서위원회(National Committee for Peace and Order: NCPO)를 발족한 뒤 국왕의 승인을 받아 2014년 9월 빠랏웃 짠오차(Prayuth Chanocha) 총리가 이끄는 과도정부를 출범시키고, 과도의회인 국가입법회의(NLA)를 사실상 통제하였음.
- 태국 헌법에 의하면 의회는 상원 250명, 하원 500명으로 구성되며, 하원의원은 유권자가 선출하되 상원의원은 전원 NCPO가 임명하며 선거제도를 통한 군부의 합법적 집권이 가능함. 태국 총리는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상·하 양원의 과반수(376명)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당선될 수 있음.
- 군부는 헌법에 의해 상원 250석(상·하원 총 의석의 33.3%에 해당)을 보장받음에 따라 정권 교체 및 헌법 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현 제도하에서는 선거를 통한 군부의 지속적 재집권 가능성이 높음.
- 2014년 5월 군사 쿠데타를 통해 집권했던 빠랏웃 짠오차 前총리는 루엠타이쌍창당(RTSC)의 총리 후보로서 임기 연장을 노렸지만, 2023년 5월 총선에서 당이 36석을 얻는 데 그치자 2023년 9월 1일 정계 은퇴를 선언함.
- 2023년 5월 총선 결과, 야권의 전진당(MFP: Move Forward Party)이 하원 151석을, 프아타이당(Pheu Thai Party)이 하원 141석을 차지하였으며, 양당 중심으로 야권연합세력을 구축하여 하원 312석을 확보하고 피타 림짜른랏(Pita Limjaronrat, 43세) 전진당 대표를 총리 후보로 지명하였음. 그러나 1, 2차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치러진 총리 선출 투표에서 피타 후보는 과반 동의를 얻지 못함.
- 2차 투표 직전 피타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헌법재판소 청원이 받아들여지고 직무 정지 명령이 내려지면서 총리 선출이 무산되었음. 전진당은 총선 과정에서 반군부 및 정권 교체에 대해 프아타이당과 연대했으나, 프어타이당의 친군부 및 보수 정당과의 연정을 반대하며 야당으로 남음.*

*자료 : 태국 신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과 시사점 P. 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3.9.26자

- 구 여권을 지지하는 상원의 반대로 총리 선출에 실패한 전진당은 야권연합 내의 제2당인 프아타이당에게 총리 선출권을 넘겨주었는데, 프아타이당은 기존의 야권 연대를 깨고 전진당을 배제한 채 구 여권 친군부 정당인 품짜이타이당(Bhumjaithai Party, 71석), 팔랑쁘라차랏당(PPRP, 40석), 루엠타이쌍창당(RTSC, 36석) 등과 연대함. 그리고 상원의 지지를 받아 프아타이당의 세타 타위신이 과반을 훨씬 상회하는 482표를 얻어 총리로 당선됨.
- 연립정부는 경제 활성화, 최저임금 인상, 강제 징병제 폐지 등을 내건 프아타이당의 비전을 지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으며, 의료용 대마초의 법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한편, 연립정부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헌법을 개정하는 동시에 왕실모독죄 조항을 유지하기로 함.
- 한편, 2008년 이후 14년 간 망명 상태에 있던 탁신 친나왓 前총리는 자신의 지지세력인 프아타이당의 승리가 확실시되자 태국으로 복귀하여 과거 부정부패 혐의로 징역 8년형을 구형 받아 수감되었으나, 현재 가석방된 상태임.

사회안정

대마의 마약류 제외 후 사회문제 증가로 재범죄화 추진

- 2022년 6월 태국은 아시아 최초로 의료용 및 요리용 대마초를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가정 재배도 허용하였음. 당시 품짜이타이당의 당수이자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아누틴 찬비라쿨(Anutin Charnvirakul)이 의료 및 요리 용도에 한해서 대마초의 사용을 허용한다고 결정함.
- 한편, 이는 품짜이타이당이 기반을 둔 농촌 지역에서 대마 재배를 통한 농가 수익 증대, 침체된 여행·의료관광 활성화 및 숙박 등 부대산업 진흥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진행되었음. 또한, 태국 정부는 신청자에 한해 약 50만 가구에 대마 묘목 2개씩을 무료로 나눠주는 등 대마 재배 및 육성 환경을 조성하기까지 하였음.
- 이후 여행 등 관련 산업이 발전하고 있으나 10대를 포함한 다양한 연령대 내·외국인들의 무분별한 대마초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범죄가 급증하였으며, 급기야 2022년 10월 마약 복용 혐의로 면직된 경찰관이 어린이집에서 총기를 난사해 30명을 살해한 사건을 계기로 대마 재범죄화 요구가 거세짐.
- 이에 2023년 초 태국 정부는 증가하는 범죄와 언론의 비판을 의식한 듯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함. 태국 정부는 필로폰 정제 한 알이라도 소지한 사실이 적발되면 마약 거래상으로 간주해 징역형 등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집중 단속에 나섬.
- 한편, 대마초 재범죄화 추진에 대마초 사용 지지자들과 농가들은 크게 반발하며 수도 방콕에서의 시위를 주도하였는데, 이는 태국 정부에서 대마 재배를 적극 허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반대되는 정책을 시행하는 정책 일관성 부재와 외국산 대마 유입에 따른 태국 내 대마 가격 인하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보임.

2023년 부패인식지수 순위는 전년 대비 1단계 하락한 108위 기록

- 2023년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보고서에서 태국은 35점(100점 만점)으로 조사 대상 180개국 중 108위를 기록하였음. 이는 1년 전 101위보다 1단계 하락한 결과로, 베트남보다 낮고 필리핀보다는 높은 순위임.

※ ASEAN 국가들의 부패인식지수: 말레이시아(50점, 57위), 베트남(41점, 83위), 인도네시아(34점, 115위), 필리핀(34점, 115위), 캄보디아(22점, 158위) 등

국제관계

인접국과의 관계 강화

- 태국은 동남아시아 국가들 간의 평화, 안보 및 경제협력 강화를 위하여 ASEAN 및 아세안 자유무역지대(ASEAN Free Trade Area: AFTA) 창설에 참여하며 역내 인접국들과의 관계 강화를 적극 도모함.
- 또한 아세안 10개국과 함께 2015년 12월 31일 아세안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AEC)를 출범시켰으며, 상품무역에 대한 관세 철폐, 투자 규제 철폐,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 회원국 간 경제 정책 조정을 통한 지역 경제통합을 추진하고 있음.
- 2023년 1월 28일 태국은 태국·라오스·중국을 연결하는 철도* 건설 사업 추진을 시작함. 해당 철도는 기존 교통 인프라와 연계해 구축하고, 태국과 라오스를 잇는 철도 노선은 2024년 4월부터 정기운행 개시 예정임. 한편, 중국과는 과거 철도 건설 관련 설계와 용자 상의 문제로 갈등을 겪으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음.

* 철도노선: 태국 수도(Bangkok) - 태국 북부(Nong Khai) - 라오스 수도(Vientiane) - 중국 남부(Kunming)

세계에서 수교국이 가장 많은 국가, 양자 및 다자간 무역협정 체결 등을 통한 무역 확대 추진

- 태국은 2023년 1월 기준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등 198개국과 외교관계를 맺어 세계에서 수교국이 가장 많은 국가로 꼽히고 있음. 또한, 태국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양자 및 다자간 협정을 통한 무역 확대에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인도, 호주, 뉴질랜드, 페루, 일본, 칠레와 양자간 FTA를 기 체결했으며, 태국이 속한 ASEAN은 한국, 중국, 일본, 홍콩 등과 다자간 FTA를 기 체결하였음. 2020년 11월에는 ASEAN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최종 타결되었음.
- 2023년 1월 태국 정부는 지난 2014년 이후 중단됐던 EU와의 양자 간 FTA 논의를 본격적으로 재개함.
- 태국 정부는 EU와 2023년 9월 18~22일 1차 FTA 협의, 2024년 1월 22~26일 2차 FTA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2024년 6월 17일 3차 협의회가 진행할 예정임.
- EIU에 따르면 태국은 현재 동남아시아 국가 중 EU에 대한 수입관세율이 11.5%로 가장 높은 국가임. 인접국들인 말레이시아는 5.6%, 인도네시아는 8.1%를 부과 중임. 태국 비영리 학술연구기관인 The Institute of Future Studies for Development에 따르면, 태국의 EU와의 FTA는 연간 경제성장률을 1.2% 증가시키고, 연간 수출입을 2.8% 증가시킬 것이라고 함.
- 태국 정부는 FTA가 무역을 확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보고, EU뿐만 아니라 ASEAN-캐나다 FTA의 추진도 주도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 2024년 3월 20일자 태국 외교부는 영국과 전략적 동반자로 외교관계를 격상하며 무역과 투자유치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힘. 유럽 국가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양국 외교장관은 관계 격상과 함께 경제·정치·안보·기후변화·농업·과학·보건·인적교류 등 8개 핵심분야에서 포괄적 협력에 나서기로 함.

외채상환태도

외채상환태도는 양호한 수준 유지

- 2023년 9월 말 기준 OECD 회원국 ECA들의 태국에 대한 금융지원액은 76억 달러(단기 53.7억 달러, 중장기 22.3억 달러)이며, 연체금액은 중장기 109.4백만 달러(연체율 1.44%)로 채무상환태도가 비교적 양호한 편임.

국제시장평가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3등급 (2023.06)	3등급 (2022.06)
Moody's	Baa1 (2022.04)	Baa1 (2021.08)
Fitch	BBB+ (2023.11)	BBB+ (2022.11)

OECD, 국제신용평가 모두 양호한 기존 신용등급 유지

- 태국은 군부 통치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대외신인도 및 외채상환능력 등 경제적 강점에 힘입어 주요 신용평가사들로부터 양호한 투자적격 신용등급을 수년째 계속 유지하고 있음.

- 태국은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신흥경제국이자 세계적인 관광대국으로 연간 4천만 명 수준의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였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대외거래, 소비심리, 관광객 방문 등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어 -6.1%의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기록하였음. 2022년 하반기부터 관광 부문 회복, 민간 소비 증가 등에 힘입어 2023년에는 1.9%의 경제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23년 8월 총리 선출 2차 투표 직전 전진당 피타 림짜른랏(Pita Limjaronrat)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헌법재판소 청원이 받아들여지고, 직무 정지 명령이 내려지면서 총리 당선이 무산되었음. 전진당은 총선 과정에서 반군부 및 정권 교체에 대해 프아타이당과 연대했으나, 프아타이당의 친군부 및 보수 정당과의 연정을 반대하며 연립정부 구성에서 제외되면서 정치적 긴장이 지속되고 있음.
- ASEAN 및 아세안자유무역협정의 중심 국가로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경제발전에 힘쓰고 있어 주변국 대비 관련 제도와 인프라 등 투자환경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며, 양자 및 다자 간 FTA를 다수 체결하는 등 외국인투자 유치와 대외거래 확대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외채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외환보유액 및 외채 관련 지표가 대체로 양호하여 대외지급능력이 건전한 편임.